

개도국 기업, 일본에 대한 진출 확대

중국, 인도, 태국 등 개도국의 기업들은 일본기업의 기술과 노하우, 브랜드를 획득하고자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(M&A, 현지기업 포함)를 확대하고 있음. 우리 기업의 경우 특히 부품소재 일본기업에 대한 M&A에,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.

- 2010년 8월 현재 인도, 태국 등 개도국 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출자 건수가 5년 전과 비교해 약 1.5배 증가
 - 일본의 기업정보회사인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, 개도국 기업이 출자(M&A, 현지법인 포함)한 일본기업의 수가 2005년 82개사에서 2010년 120개사로 확대
 - * 개도국은 인도, 브라질, 러시아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, 터키, 남아공의 11개국이 해당
 - 국별로는 인도가 38개사(31.7%)로 가장 많고, 이어서 태국(27개사, 22.5%), 말레이시아(22개사, 18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 - 업종별로는 도매업 50개사(41.7%), 서비스업 21개사(30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 특히 식품, 의약품, 화학제품, 귀금속 등의 무역회사와 소프트웨어업체가 많았음.
 - 매출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많았는바, ‘1억 엔 ~ 10억 엔’ 이 41개사(45.1%), ‘10억 엔 ~ 100억 엔’ 이 28개사(30.8%)였음.

□ 한편, 중국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출자는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.

- 2010년 6월 현재 중국기업이 출자(M&A, 현지법인 포함)한 일본기업의 수는 611개사로, 5년 전(233개사)에 비해 약 2.5배 증가
- 업종별로는 도매업 323개사(52.9%), 서비스업 136개사(22.3%), 제조업 69개사(11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경우 5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
- 매출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, ‘1억 엔 ~ 10억 엔’ 이 202개사(48.1%), ‘10억 엔 ~ 100억 엔’ 이 110개사(26.2%)였음.

□ 향후 중국, 인도 등 개도국 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출자(M&A 포함)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,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가 초래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의 일본 중소기업 M&A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

- 지속적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개도국 기업의 경우 높아진 구매력 향상을 통해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, 브랜드를 획득하려는 유인이 큼.
- 현재 일본에서는 후계자 부재로 폐업하는 업체가 매년 약 7만개사에 이르고 있는데, 우리 정부는 일본기업 M&A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충 강화할 필요

<참고자료>

帝国データバンク(2010.7.8 및 2010.9.6)